

운동주 탄생 105주년 맞아 광양 정병욱 가옥 재조명

육필시고 '하늘과 바람과...' 보관
운동주 광양에서 시인으로 부활
내년부터 테마 관광상품 운영



운동주 탄생 105주년을 맞아 운동주의 육필시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보존한 광양 망덕포구 정병욱 가옥이 주목받고 있다. <광양시 제공>

운동주 탄생 105주년을 앞두고 광양 망덕포구 정병욱 가옥이 주목받고 있다. 정병욱 가옥은 운동주의 육필시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보존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광양시에 따르면 운동주는 1917년 12월 30일 북간도 명동촌에서 태어나 명동학교, 평양 숭실중학교를 거쳐 서울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했다.

1942년 일본 도시샤 대학에 입학했으나 1943년 독립운동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돼 후쿠오카 형무소에 수감됐다 1945년 2월 16일 스물아홉의 젊은 나이에 순국했다.

광양은 운동주가 한 번도 밟지 않은 땅이지만 연희전문 졸업 기념으로 출간하려다 좌절된 육필시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지켜내 시인으로 부활시킨 역사 공간이다.

운동주의 연희전문 후배 정병욱은 우리 말과 글이 금지된 일제강점기, 운동주가 친필로 써서 쓴

수묵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고이 간직했다가 세상에 알린 장본인이다.

유교에는 서시를 비롯해 별 헤는 밤, 자화상, 길 등 시대의 어둠을 비추는 별과 같은 19편의 시가 토박토박 새겨져 있다.

1948년 1월, 유교를 바탕으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간행되면서 마침내 시인으로 부활한 운동주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으로 우리들의 가슴에 영원히 살아남았다.

광양 망덕포구 '운동주 유교 보존 정병욱 가옥(등록문화재 제341호)'에는 명주 보자기에 쓴 유교를 향아리에 담아 마루바닥 아래 깊숙이 간직한

상황이 생생하게 재현돼 있다.

정병욱 가옥에서 500여m 떨어진 곳에 조성된 '운동주 시 정원'에는 유교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수록된 31편 전편이 시비로 아로새겨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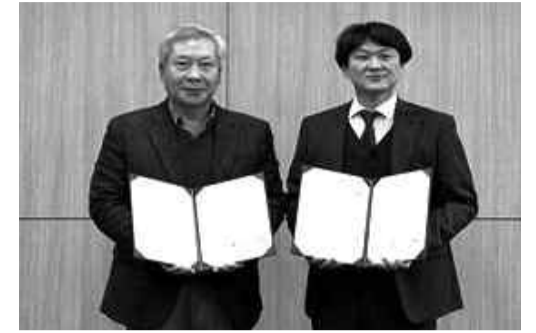
또한, 망덕포구와 배알도 섬 정원을 잇는 해상 보도교 명칭도 운동주의 대표작 '별 헤는 밤'을 모티브로 하여 '별 헤는 다리'로 명명했다.

시는 내년부터 광양을 비롯해 중국, 일본 등 운동주의 발자취를 더듬어 볼 수 있는 장소를 탐방하는 운동주 테마 관광상품 운영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광양과 운동주의 관계를 브랜딩하고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에 힘쓸 방침이다.

정규영 광양시 관광과장은 "운동주의 생물학적 고향은 중국 북간도지만 시인 운동주의 고향은 그의 육필시고를 간직해 시인으로 부활시킨 대한민국 광양이다"고 말했다.

이어 "운동주 탄생 105주년을 맞아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도 등불 같은 시를 쓰며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럼이 없는 삶을 추구한 운동주의 시 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역사문화 여행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전남여수산학융합원
광주전남혁신플랫폼 대학본부와
미래형 운송기기 분야 산업 협약



(사)전남여수산학융합원(원장 정강-이하 융합원)은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대학교육혁신본부(차성현 본부장)와 '미래형 첨단 운송기기 분야 산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지난 26일 융합원에서 개최된 협약식에는 정강 융합원 원장과 차성현 본부장(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대학교육혁신본부), 융합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광주전남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과 첨단 미래형 운송기기 분야의 발전과 산업수요 중심의 인력양성을 위해 양 기관이 보유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교육 및 활동지원에 적극 협력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산학협력 활성화 및 산업현장 수요 맞춤형 우수인력을 양성하고 첨단 미래형 운송기기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정강 전남여수산학융합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더욱 더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산학융합을 통해 산과 학이 상생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여수시 2023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공모 선정...국비 3억2000만원 확보

여수시가 내년 7월 전 세계 20개국 550여명이 참가하는 '2023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를 앞두고 국비 3억 2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3년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지원이 확정됐다.

'2023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는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참가하는 세계배드민턴연맹(BWF) 공식 인증 국제대회이다.

내년 7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여수시 진남체육관 등 진남경기장 일원에서 개최되며, SPOTV를 통해 전 세계 20개국에 송출될 예정이다.

대회 기간 선수단과 관계자, 서포터즈, 동호인 등 3만여 명의 방문이 예상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순천시 지방재정·세정 혁신 상 휩쓸어

전국 지방세발전포럼 대상
지방재정 발표대회 최우수상



2022년 전국 지방세발전포럼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대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순천시.

순천시가 2022년 전국 지방세발전포럼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대상'인 '국무총리상'에 이어 제 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지방재정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을 모두 휩쓰는 기염을 토했다.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지방세발전포럼에서 전국 17개 광역시·도 대표가 참석해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 경연을 펼쳤는데, 전남도 대표로 참석한 순천시 세정과 김두홍 주무관의 '지입차량의 효율적 세원관리

방안(내꺼 인 듯 내꺼 아닌 화물 자동차)'이 심사위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아 대상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로봇이 만들어준 커피 마시고 요술사진관에서 인생사진

섬진강기차마을 키오스크 설치
코로나 걱정 없는 비대면 관광

긋한 커피를 제공한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한 서비스로봇 활용 실증공모사업에 선정돼 설치한 것으로 로봇바리스타는 미세한 센서들이 부착된 6축 단관절 전자동 로봇 커피 머신이다. 정확한 양과 기술로 최상의 맛을 내는 커피뿐만 아니라 주스,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메뉴를 판매한다.

요술랜드에는 '요술사진관'이 설치돼 있다. 섬진강기차마을의 명소들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무인 사진 합성 키오스크다. 전남도에서 주관한 바이러스 프리 공모사업비로 제작됐다.

요술사진관에서는 장미, 증기기관차, 옛 곡성역 등 다양한 배경을 직접 선택해 촬영할 수 있다. 촬영된 사진은 인물 크기조정, 위치 변경, 스타프 및 메모 작성 등의 편집 후에 출력하면 된다. 완성된 사진은 카카오톡으로 전송해 소장할 수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코로나 시대에 부응하는 다양한 무인 키오스크를 준비했다. 섬진강기차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곡성=박종대 기자 pit@kwangju.co.kr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도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수목장*자연장 전문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 주말, 공휴일도 24시간 상담가능 >
062) 464 - 9190